



Save the Children

# 동아프리카 식량위기

긴급구호 6개월 보고서



## 세이브더칠드런 9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동아프리카에 발생한 가뭄과 이로 인한 식량위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긴급구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백만 주민이 중증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긴급구호 6개월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구호단체들은 구호 식량과 물, 보건영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호활동을 통해 수 백만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아동도 수 백만 명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구호활동을 멈출 수 없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모금과 대응은 세이브더칠드런의 9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프리카 지역 주민 250만 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후원자 여러분과 시민 사회의 관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펜로즈(Mike Penrose)  
세이브더칠드런 긴급구호 총괄책임자





## 동아프리카 상황

동아프리카 주민들은 최근 몇 년간 잦은 가뭄을 겪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가뭄 피해에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피해는 즉각적인 요인과 장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 2010년 10월과 2011년 3-4월에 비가 오지 않음
- 국제 식량가격의 폭등
- 불안정한 지역 치안
- 사회기간시설 및 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
- 인구 증가

이러한 원인들이 겹쳐 2011년에는 1,300만 명에 달하는 동아프리카 지역 주민이 영양실조의 위험에 놓였다. 부족한 강수량 때문에 솥한 농작지가 폐허가 되었다. 수확할 농산물도 말라 비틀어지고 가축도 폐사했다. 피해 주민의 대부분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이들은 남은 가축마저 탈수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계수단과 마지막 식량이던 가축을 팔아야 했다.

식량과 식수 가격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 수백 만 주민이 구호활동에 기대야만 했다. 수만 명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다.

식량위기는 대규모 피난으로 이어졌다. 소말리아 가족들은 가뭄과 계속되는 분쟁을 피해 이웃 국가로 피난을 떠났다. 케냐의 다답(Dadaab)과 같은 난민캠프는 순식간에 수용 인원을 초과했다. 다답 난민캠프에는 하루에도 최고 1,500 명의 난민이 도착한다. 지난 여름 동안 에티오피아의 돌로아도(Dollo Ado) 난민캠프는 소말리아 난민 1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은 식량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이다.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높다. 영양실조는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막아 발달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영양실조는 질병 감염률을 높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아동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학교를 나와 구걸이나 노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 중에는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족이 흩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학대와 노동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지기도 한다.



우미(Umi),  
생후 3개월,  
2011년 7월



##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다: 우미(Umi)의 이야기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고 있는 케냐 와지르(Wajir) 남부 지역의 보건소에 생후 3개월 된 우미가 처음 왔을 때, 우미의 몸무게는 고작 1.7kg에 불과했다. 우미는 닳새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토해낸 상태였다. 우미는 폐렴을 앓고 있었고 계속된 구토 때문에 탈수 증상도 보였다. 우미의 어머니 또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은 우미에게 항생제와 포도당을 제공하고 곧바로 우미를 와지르 지역 병원의 안정화센터로 후송했다.

우미의 어머니인 아미나(Amina)는 “주민 대부분이 가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 가축들이 폐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정부에서 식량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고 말했다.

우미는 치료용 우유를 먹기 시작했고, 우미의 어머니 또한 모유 수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우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보건요원 중 한 명은 “치료를 받은 지 단 3일 만에 우미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미와 어머니는 5일 뒤 안정화센터에서 퇴원했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이후 규칙적으로 우미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우미는 6주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이 제공하는 고영양 땅콩죽을 먹었다. 이제 우미는 몸무게도 4.7kg으로 늘고 생기도 되찾았다.

우미의 어머니는 "우미는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딸이 건강하니 저 역시 행복해요. 정말 기쁘죠. 3개월 전에 슬펐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라고 말했다.

우미,  
생후 6개월,  
2011년 10월





## 초기대응:

## 위기발생 단계에서의 구호활동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0년간 동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조기경보가 발생한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2010년 말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식량과 식수, 건강 관리, 생계, 아동 보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2011년 7월,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에서 긴급구호에 착수했다.

**이번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활동과 모금은 세이브더칠드런 9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지난 6개월간 후원자의 도움에 힘입어 지역 정부와 국제 인도주의기구, 피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동아프리카 주민 약 250만 명을 도울 수 있었다.

2012년에도 계속해서 긴급구호를 펼칠 예정이다. 동시에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처음 목표했던 모금 규모는 1억 달러(USD)(한화 약 1,120억 원)였지만, 지속되는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모금 규모를 2억 달러(한화 약 2,248억 원)로 확대했다.

### 소말리아(Somalia): 가장 위험한 전쟁 발발지에서 28만 5,325명\* 지원

- 긴급구호의 규모를 3배로 확대했으며, 소말리아에서 진행하던 장기 사업의 규모 역시 확장했다. 사업 지역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과 푼틀랜드(Puntland) 지역까지 확대했다.
- 주민 9만9,250명과 가족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수공급체계와 정수제를 제공하고 트럭을 통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했다.
- 여성과 아동 11만 명의 영양실조를 예방/치료했다.
- 학교 시설을 강화하고 교사 훈련을 통해 아동 7,7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많은 아동이 생애 처음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 수도 모가디슈(Mogadishu)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9,000여 가구에 식량, 식수, 보건서비스 등을 즉각적으로 제공했다.

\* 소말리아에서 진행중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은 대부분 통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나 케냐보다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세 국가의 인구도 다르며, 이 중 소말리아의 인구가 가장 적다. 소말리아는 공급과정이나 원조 주체에 관한 제약이 많아 구호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형식 변하는 안보 상황과 직원의 이동 제한,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제약 등으로 소말리아 사업은 케냐나 에티오피아 사업의 규모만큼 확대하기 힘들다.





## 초기대응:

### 위기발생 단계에서의 구호활동

#### 에티오피아(Ethiopia): 사업을 확대하여 180만 명 이상에게 지원

-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10만 명 이상에게 식량과 현금교환권뿐 아니라 종자나 연료를 제공했다. 또한 가족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예방접종과 치료활동도 시행했다.
- 긴급구호 식수 및 공중위생 프로그램(식수 제공, 급수시설 설치, 정수제 제공, 위생교육)을 통해 49만 9,536명이 지원을 받았다.
- 긴급구호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7만1,773명을 지원했다.
- 신속한 영양제공이 필요한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11만8,752명에게 영양을 제공했다.
-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캠프와 난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아동 6만3,000명 이상을 지원했다.

#### 케냐(Kenya): 옹호 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사업으로 44만5,086명 지원

- 피해 지역 내 모든 5세 미만의 아동이 제대로 된 영양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옹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수유 기간 내 여성 12만1,500명이 식량을 지원받았다.
- 다답(Dadaab) 난민캠프에서 아동보호사업을 시작하여 난민캠프에 들어온 아동 2만3,000명에게 안전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 부모와 헤어졌거나 다른 이유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동을 파악하여 가족을 찾아주거나 위탁가정과 연결해 주었다.
-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굶주림에 대응하고 가뭄피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NGO 연합체를 구성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 세이브더칠드런, 250만 명 이상 지원:

분야	성인	아동	총 수혜자
비식량 구호물품*	21,021	38,375	59,396
아동보호	26,608	77,793	104,401
교육	907	68,246	69,153
보건	132,485	140,086	272,571
영양	171,310	279,503	450,813
식량안보 및 생계지원	850,490	540,480	1,390,970
식수 및 공중위생	388,232	399,153	787,385
<b>총**</b>	<b>1,420,639</b>	<b>1,162,703</b>	<b>2,583,342</b>

\* 비식량 지원은 실내용품(매트리스, 취침용 매트, 용기, 조리 기구) 또는 위생키트(모기장, 비누)로, 이 물품들은 다른 프로그램 시행 중 함께 제공되었다.

\*\* 총계는 중복된 수치를 제외한 값이다.







## 후원금 규모

세이브더칠드런은 2011년 7월 동아프리카 긴급구호를 위해 1억 달러(USD)(한화 약 1,100억 원)를 조성하는 모금을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약 1억 800만 달러(한화 약 1,200억 원)가 모였고 세이브더칠드런은 4,800만 달러(한화 약 525억 원)를 사용하여 250만 명 이상에게 구호활동을 펼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금 목표액을 2억 달러(한화 약 2억 2,000만 원)로 확대하여 구호활동을 지속하여 가장 취약한 아동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기금이 없으면 현재 생필품과 깨끗한 식수, 보건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은 또 다시 심각한 취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전의 극심한 굶주림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추가 기금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가 향후 발생할 가뭄에 대처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조기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농부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훈련시키고, 영양실조의 초기 증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일함으로써 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긴급구호 활동

### 보건서비스 제공: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식수 부족과 식량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따라 많은 아동이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폐렴이나 설사,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미 열악했던 피해 지역의 보건서비스는 인적 자원이나 보건의료 기기, 정제수의 부족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동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총 **27만 2,500 명에게** 예방접종과 산후조리 등 기초보건서비스를 지원했다.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보건요원의 교육도 맡았다. 이동진료 팀은 보건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찾아가 유목민과 같이 기초보건 서비스를 받기 힘든 취약 계층의 주민을 치료했다. 또한 홍수가 발생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동아프리카 전 지역에 기초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보건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초적인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영양프로그램:

부족한 강수와 물가상승,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동아프리카를 강타한 식량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1년에는 가뭄이 악화되면서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였던 많은 아동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가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5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모유 수유중인 산모들을 위해 영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45만 800명**(아동 29만 3,000명 포함)에게 영양을 제공했다.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영유아와 아동에게 영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산모에게는 생후 6개월까지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할 것을 권장했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외래환자 시설 409곳을 세우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는 아동을 위한 안정화센터 11곳을 설립했다.

취약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가뭄과 이로 인한 굶주림이라는 악순환 속에 지역사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영양실조의 초기증상을 식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 생계지원:

가축에게 필요한 물과 목초지가 심각하게 부족해짐에 따라 가축이 병에 걸리거나 폐사했고, 우유와 육류 생산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식료품 값이 폭등하면서 상황도 더욱 악화됐다. 소말리아의 곡물 가격은 240%까지 치솟았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17%, 케냐에서는 58% 상승했다. 지역의 불안정한 치안과 국제 유가 상승 등도 식량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긴급구호 활동

세이브더칠드런은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약 **130 만 명**(아동 40 만 3,000 명 포함)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생계 수단을 지원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축마저 팔지 않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 사료를 제공했다. 또한 농부에게 종자와 연료를 제공하고,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음식과 채소를 살 수 있도록 부모에게 식량교환권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가뭄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역사회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농업조합을 설립하여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가축들의 건강한 상태 유지를 위해 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다.

### 식수와 위생서비스

동아프리카 지역에 식수가 고갈됨에 따라 위생 상태가 악화면서 말라리아와 설사와 같은 질병이 증가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긴급히 식수를 제공하고 용기, 양동이, 비누, 정수제 등이 포함된 위생키트를 배급했으며, 난민캠프와 학교, 보건 시설 내 세수장과 화장실을 설치했다. 빗물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러한 식수 및 공중위생 사업으로 총 **78 만 7,000 명**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수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수칙을 알리는 한편,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은 수원지를 복원하고 가축 관리를 비롯하여 가뭄에 강한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진행할 것이다.

### 긴급구호 상황에서도 아동의 교육 보장

수천 명의 아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노동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심각한 경우 다시 학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UNICEF)는 아동이 가뭄 기간에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UN 교육클러스터(UN Education Cluster)를 주도했다. 또한 난민캠프와 피해 지역사회 내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교사를 훈련했으며, 학교 건물을 짓고 책상, 의자, 공책과 책가방 등 교자재를 제공했다. 그 결과 아동 6 만 9,000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중에는 생애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아동도 다수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낙타 도서관 프로젝트(camels libraries project)”라는 혁신적인 교육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가 낙타를 타고 유목 지역에 도서를 전달하여 소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시 거처를 세우고 기존의 학교를 보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보호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아동은 부모와 떨어지거나 착취나 학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족이 생계 수단을 잃어 아동은 음식을 구걸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비좁은 난민캠프의 생활은 일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향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폭력을 방지하고 학대나 폭력, 외상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직원을 난민캠프 입소지에 배치했다. 아동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설립한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놀며, 전문훈련을 마친 세이브더칠드런 직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일상감과 안정,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 지도자와 협력하여 부모와 헤어진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위탁가정을 연계해 주기도 했다. 에티오피아에서만 아동 3,532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지금까지 **10만 4,400명**(아동 7만 7,700명 포함)이 아동보호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동아프리카에서 성학대와 위험노동, 인신매매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변화를 만드는 옹호활동

향후 발생할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동아프리카 지역 정상들은 1월에 있을 아프리카연합 총회(African Union Summit)에서 식량위기를 논의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는 ‘굶주림 종결을 위한 강령(Charter to End Extreme Hunger)’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 모든 개발과 인도주의적 사업은 지역사회가 가뭄과 홍수를 포함한 모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조기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공여국은 지역 사회와 NGO, 지역 정부가 적시에 올바른 재해 예방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
- 가장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로 지역사회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 수입을 다양화하는 결정을 돕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지역에 걸쳐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정부가 많은 난민을 수용,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 향후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이 지향하는 행동가치인 책임과 포부, 협력, 창의, 정직을 기반으로 2012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사업을 지속하고,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고 구호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2년에는 초기복구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 지역의 아동과 그 가정에 통합적인 기초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역 시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및 정부가 차후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식량과 식수, 영양, 보건, 교육, 아동보호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적인 옹호활동은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타 NGO와 협업하여 정부와 국제사회의 행동지침을 담은 '굶주림 종결을 위한 강령'을 개발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이 강령은 UN 긴급구호 담당자와 케냐의 수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 후원자 여러분께

세이브더칠드런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9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가뭄 피해를 입은 케냐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의 250만 명을 도울 수 있었던 것 모두 후원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원은 앞으로 발생할 재해와 위기 상황에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